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원예활동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허유미

2012년 8월

원예활동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양 순

허 유 미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허유미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2년 8월

The Effects of Horticultural Therapy On Empathy and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eo, Yu Mi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ang S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2012. 8.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용어의 정의	3
II. 이론적 배경	5
1. 원예활동	5
1) 원예활동의 개념	5
2) 원예활동 효과	6
2. 공감	7
1) 공감능력 발달	7
2) 공감훈련 프로그램	10
3) 공감능력과 원예활동과의 관계	11
3. 대인관계만족도	13
1) 대인관계만족도 발달	13
2) 대인관계만족도와 원예활동과의 관계	15
III. 연구방법	18
1. 연구대상	18
2. 연구기간 및 절차	18
3. 측정도구	19
1) 공감 척도	19
2) 대인관계만족도 검사	19

4. 원예활동프로그램 구성	20
5. 분석방법	26
IV. 연구결과.....	27
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동질성 검증	27
2. 원예활동프로그램 효과 검증	28
1) 공감능력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28
2) 대인관계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30
V. 논의 및 제언	32
1. 논의.....	32
2. 제한점 및 제언.....	34
참고문헌	36
Abstract.....	40
부록	42

표 목 차

<표 III-1> 연구설계모형	18
<표 III-2> 공감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19
<표 III-3> 대인관계만족도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20
<표 III-4> 원예활동 프로그램 구성	23
<표 IV-1> 공감능력에 대한 사전 검사의 집단 간 동질성 비교	27
<표 IV-2> 대인관계만족도에 대한 사전 검사의 집단 간 동질성 비교	27
<표 IV-3> 공감능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집단 간 평균과 표준편차	28
<표 IV-4> 공감능력에 대한 집단 간 공변량분석	29
<표 IV-5> 대인관계만족도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집단 간 평균과 표준편차	30
<표 IV-6> 대인관계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공변량분석	31

【국문초록】

원예활동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허 유 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김 양 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감훈련을 적용한 원예활동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으며,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심리치료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시에 소재한 I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학생 100명(실험집단 n=49명, 비교집단 n=5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원예활동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나 비교집단은 그 어떤 프로그램도 실시하지 않았다. 원예활동프로그램은 이경아(2010)의 공감훈련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주의 집중하기, 감정표현하기, 관점수용하기, 나-메시지로 전달하기, 공감표현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식물을 기르고 상호작용하는 활동과 공감경험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둠별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실험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이며 주 2회로 총 16회기의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의 원예활동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 모두 사전과 사후에 공감검사와 대인관계만족도검사를 실시하여 측정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험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의 동질성 검증과 평균, 표준편차,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예활동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 97)=21.222, p<.01$].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인 관점수용 [$F(1, 97)=11.186, p<.01$], 공감적 관심 [$F(1, 97)=15.503, p<.05$], 정서적 공명 [$F(1, 97)=12.624, p<.01$]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아동이 식물을 기르는 과정을 통해 공감능력을 키우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수용능력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원예활동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대인관계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 97)=17.309, p<.01$]. 대인관계만족도의 하위영역인 일반적인 관계 [$F(1, 97)=10.076, p<.01$], 부모와의 관계 [$F(1, 97)=6.622, p<.05$], 교사와의 관계 [$F(1, 97)=6.230, p<.05$], 친구와의 관계 [$F(1, 97)=9.855, p<.01$]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아동이 다양한 원예활동들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하였고, 집단활동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증가하였으며, 부모, 교사, 친구와 긍정적 대인관계 경험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실시한 원예활동프로그램이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만족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기존 원예활동에 새로운 요소로 공감훈련을 적용하여 원예활동을 확대·응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공감훈련프로그램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효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원예활동프로그램과 공감훈련프로그램을 학교현장과 심리치료에 도입되기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원예활동, 공감, 대인관계만족도

I.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아동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3년 연속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한국방정환재단, 2010). 주관적 행복지수의 하위영역에서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외로움’은 2위로 나타나 아동의 행복과 정신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족스런 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교사나 또래들과 관계를 맺고 집단에서의 소속감이 싹트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아동이 학교에서 어떠한 대인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이 달라진다. 그리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인격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허영숙, 2010).

만족스러운 대인관계의 경험은 아동에게 건전한 인격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나 불만족스러운 대인관계는 우울, 낮은 자존감, 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비행 등의 부적응 문제들을 야기시킨다(이옥희, 2010).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 형성된 인격과 대인관계 양식이 개인의 전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이 겪고 있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성장할 경우 심리적·사회적 부적응이 크게 우려된다.

오늘날 과열된 경쟁위주의 사회 속에서 아동은 자기중심적, 경쟁적, 비사회적이 되어 오로지 성공만이 행복한 삶이고, 실패는 낙오자라는 좌절감을 불러온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 등 개인주의적 미디어의 영향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습득할 기회가 많이 차단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에게 만족스런 대인관계 경험을 제공해주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

하다.

원예활동이 지닌 독특한 특성은 ‘살아있는 식물’을 매개체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Relf(1992)에 따르면 개인은 어린 시절부터 식물을 접하고 기르는 학습을 통하여 나와 다른 생명체에 대해 인식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이 식물을 기르면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식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점차 커지고, 그에 따른 주의력과 관찰력도 증대된다. 그리고 식물에게 필요한 것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은 인간과의 관계로 확대되어 더 나은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간다(Matsuo, 2005). 또한 원예활동은 개인과 학급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협력관계를 통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신감과 사회성이 증진된다(김은영, 2009).

그동안 국내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 의사소통능력, 공감, 자기표현, 갈등해결 등의 기술을 익히도록 되어 있다(김진옥, 2010). 그중에서도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조건인 공감능력은 위에서 제시한 원예활동의 특성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

공감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대인간의 상황에 있어서 상대방의 사고, 감정, 의도 등을 이해하고 이해한 바를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능력이다. 이는 개인이 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식물에 대한 관찰과 수용, 재배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능력과 유사하다. 그리고 다양하고 협력적인 원예활동을 수행하면서 대인관계상황이 자연스럽게 제공되어 공감능력과 의사소통기술을 활용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이 이루어진다.

기존 원예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원예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의사소통기술이 향상되고 교우관계나 또래관계가 증진되고 사회성이 발달되는 등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들은 많지만, 공감능력과 원예활동간의 관계를 연구한 것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예활동에 공감훈련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에

게 실시하여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초등학생의 개인발달과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및 심리치료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문제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다.

문제 1. 원예활동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에 효과를 보이는가?

문제 2. 원예활동은 초등학생의 대인관계 만족도에 효과를 보이는가?

3. 용어의 정의

1) 원예활동

원예치료는 식물을 이용한 원예활동을 통해 사회적·교육적·심리적·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로 인해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손기철 외 4인, 2006).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일반아동이므로 ‘원예치료’라는 용어 대신에 ‘원예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원예활동에 공감훈련을 적용하여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식물 재배활동, 공예활동, 협력활동을 말한다.

2) 공감능력

공감은 자신의 정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고, 감정, 의도 등을 추측하고 인지하는 인지적 요소, 타인의 감정을 지각하고 정서적으로 대리 반응하는 정서적 요소, 자신이 이해한 바를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의사소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박성희, 2004).

본 연구에서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가 결합된 개념으로 ‘식물과의 공감적 체험을 통해 타인에 대하여 공감적 관심을 갖고 타인의 정서와 사고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이해한 바를 상대방에게 표현·전달하는 능력’으로 본다.

3) 대인관계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타인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말하며,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 친구, 부모, 교사와 같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기대하는 요구수준에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 지를 의미한다(은혁기, 1999).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만족도는 ‘기르는 식물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지각을 바탕으로 일반사람, 부모, 교사, 친구와 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원예활동

1) 원예활동의 개념

‘원예’의 어원은 라틴어의 ‘hortus’와 ‘cultura’에서 유래되었다. culture의 사전적 의미는 ‘땅’을 경작한다는 의미 외에도 마음, 감정, 흥미, 취향 등을 의미하고 일정기간 동안에 걸친 사람들의 일정한 관습, 기술, 예술 등과 문명의 개발, 개선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손기철 외 6인, 2002). 그러나 현대의 관점에서는 원예의 정의를 단순히 둘러쳐진 곳에서 토양을 경작한다는 뜻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원예의 본질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계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예의 새로운 해석은 식물 생산에 근본을 둔 것에서부터 원예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되, 그 결과를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여 개인과 가까운 자연환경을 돌보는데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김혜경, 2006).

원예치료(Horticultural Therapy)는 ‘Horticulture’의 원예와 ‘Therapy’의 치료라는 용어의 합성어이다. 1900년대 초 Meninger는 최초로 원예치료를 ‘장애인과 관계된 정원활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미국원예치료협회에서는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향상을 위하여 식물과 원예활동을 이용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원예치료협회에서 정의한 원예치료 개념과 작업치료의 정의에 기초하여 원예치료를 “식물을 통한 원예활동에 의해서 사회적·교육적·심리적·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로 말미암아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손기철 외 4인, 2006).

원예치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원예치료가 처음 소개된 이후, 몇몇 대학에서 교수 개인차원에서 연구가 수행되어 오다가 1997년에 「한국원예치료연구회」가 창설되었다. 이 연구회는 1999년에 「한국원예치료협

회」로 개칭되었으나, 90년대 후반에 원예치료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일반 원예복지 활동과 전문적인 원예치료를 구분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로 명칭이 바뀌었다(손기철 외 4인, 2006).

Mattson(1982)가 제시한 전문적인 원예치료는 치료가 필요한 의뢰인,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한 치료목적, 치료수행능력이 있는 전문적인 치료사, 이렇게 네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심리적·신체적 질병을 가진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원예치료라는 용어 대신에 원예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원예활동 효과

고대 이집트에서 환자를 정원에서 일하게 하거나 산책하게 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최초로 기록되어 있으며, 원예활동이 주는 효과를 지적효과, 사회적 효과, 정서적 효과, 신체적 효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손기철 외 6인, 2002).

지적인 효과로는 원예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식물지식과 재배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어휘력이 증가된다. 그리고 원예활동단계에 따른 계획, 준비, 판단, 실행을 할 수 있는 계획성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또한 원예작품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개인의 표현력과 창의력이 증진된다.

사회적 효과로는 공유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에게 인간관계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동작업을 통한 자신의 맡은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키우고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 그리고 원예활동을 통해 생성된 선물과 수확물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나누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간 및 다른 생명체들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유도하여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지니게 된다. 또한 원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직업훈련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한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정서적 효과로는 식물을 접촉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긴장과 불안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밭을 갈고 잡초를 뽑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허

용되는 수단을 통해 부정적인 분노와 공격적인 감정을 완화시켜 주어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 동안에 인내력과 자제력이 요구되며 식물에 대하여 책임지는 태도를 길러준다. 미래에 대한 흥미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있어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갖게 되며, 자신이 노력한 결과에 따른 수확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자신감으로 연결된다.

신체적인 효과로는 식물을 보고 만지거나 향기를 맡고, 열매를 먹는 등 오감을 자극하게 된다. 그리고 땅을 경작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활동, 꽃을 자르고 꽃을 활동, 원예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손근육과 대근육이 발달하고 기초체력을 증진시킨다. 또한 원예활동을 계획하고 작품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대뇌를 활성화시키며 다양한 감각들이 발달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2009)에서는 아동들이 기초적인 식물재배 과정을 통해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고 올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실과 교과과정에 원예활동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관찰하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고,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협동심을 키우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원예활동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2. 공감

1) 공감능력 발달

공감의 개념은 Vischer(1873)가 미학심리학과 형태지각에서 ‘안에 들어가서 느끼다’는 함축적 의미로 독일어의 Einfühlung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등장했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Lipps(1926)가 그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예술작품에 대한 심미적 감상을 위해서는 감상자가 작품에 대한 내적인 투사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작품과 동일한 정서 상태를 유발하게 되는 Einfühlung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

이후 Tichner(1909)가 Lipps에게서 Einfühlung을 인용하여 희랍어의 empathia로 번역하였고, 결국 empathy(공감)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empathy는 ‘안’을 뜻하는 ‘en’과 ‘고통’ 또는 ‘열정’을 뜻하는 ‘pathos’의 합성어로, ‘안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열정’을 의미한다. 그는 공감을 어떤 주체가 상상속에서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감적 경향은 모든 사람들 간에 일종의 우애를 제공하여 우리 주변을 인간화하는 일반적 경향이라고 하였다. Tichner가 언급한 공감의 사회적 요소로서 오늘날 공감이 사회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내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갈등을 온정적, 수용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성을 제공하는데 기여한다는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박성희, 2004 재인용)

공감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표현적 요소(의사소통적 요소)가 있다. 그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공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다. 공감을 구성하는 인지적 요소는 공감적 정서나 행동을 이끌어내는 지적인 기제나 작용을 의미한다.

Mead(1934)는 공감을 ‘타자의 역할을 취해보고 대안적인 조망을 취해볼 수 있는 능력’으로, 역할수행을 통한 타인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는 공감적 과정이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준다고 하였다. Piaget(1969)도 공감능력이 아동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탈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하면서 발달한다고 보면서, 타인의 지각적 경험을 추론하고 그 사람의 관점에 서서 역할을 취해보는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Laura, 2007).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또다른 개념인 ‘감정의 재인’은 페쉬바흐(1975)가 말한 ‘상대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감정을 인지해 내는 능력’으로, 상대방이 표현한 언어적·비언어적 단서와 상황적 단서에 의거하여 감정이해능력이 증가한다고 보았다(박성희, 2004).

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설명하는 논리들을 종합하면 공감이 감정이나 동기를 인지해 내는 기능과 관련된다는 점, 그 과정에 지적인 추리와 상상력이 동원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감정재인, 조망취하기, 상상하기 등으로 압축해서 이해할 수 있다(박성희, 2004 재인용). 그러나 공감은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감응과 정서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감의 정서적 요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한 반응을 말하며, 대상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정서의 감염’과 대상의 감정을 느끼되 그 대상과 분리되어 대리적으로 느낀다는 ‘대리적 정서’라는 의미를 나눠볼 수 있다. 박성희(1997)가 말하는 ‘정서의 감염’은 모자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정서적 유대’나 ‘동작 모방’처럼 인지적 능력이나 반성적 사고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사적·정서적으로 일어나는 ‘원시적’ 반응을 말한다.

Rosers(1975)가 말하는 ‘대리적 정서’는 ‘마치(as if)라는 특성을 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내적 준거틀에 맞춰 감정적 의미를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것’으로, 자기와 타인을 구분하고 타인의 감정을 대리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좀더 세련되고 발전된 수준의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요소를 포함시킨 최초의 학자인 Rogers(1975)는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공감적 표현이 내담자의 치료적 변화를 촉진시켜준다고 주장하며 효과적인 상담을 만들어가는 필요충분조건으로 공감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상담자와의 관계가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공감의 의사소통적 요소는 상대방에 대해 민감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것을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전달하여 의사소통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공감을 이해현상으로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계양식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박성희(1997)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고, 모종의 관계를 구축해 나감에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이해와 예측 및 의사소통 능력은 공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했다. 공감적 반응은 자기-개방을 증가시키고, 타인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며, 지지적인 의사소통의 분위기를 제공해줌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시기의 아동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 조망수용과 역할수용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또래와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많은데 또래관계 경험은 자신과 타인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만들어 공감적 반응이 증가한다. 그래서 아동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공감능력으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Laura, 2007).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으면서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에

는 건강한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적응으로 학업부진, 등교거부,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등을 보인다 (한정희, 2005; 이옥희, 2010).

따라서 아동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기감정을 잘 인식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예활동이 아동의 공감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려고 한다.

2) 공감훈련프로그램

공감이 여러 가지 친사회적인 행동과 정적 상관을 갖고, 공격적인 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갖는다는 연구들과 높은 공감 조건이 제공되면 아동들의 성취 수준이 올라가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자존심이 향상된다는 연구보고는 공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서민경, 2006; 고소미, 2007; 이옥희, 2010). 이에 따라 다양한 공감훈련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공감훈련 프로그램에는 공감의 여러 가지 요소(지각적,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 등)를 위주로 구성된 공감훈련프로그램과 의사소통 기능에 따른 공감훈련프로그램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인지기능을 훈련·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주의집중, 경청기술, 반영기술 등 의사소통 기능에 집중되어 있다. 의사소통 기능에 따른 공감훈련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Carkhuff & Truax(1967)의 지시적-경험적 훈련, Ivey & Authier(1978)의 미시적 훈련, Guerny(1977)의 관계 증진 훈련, Egan(1976)의 대인관계 실험실 훈련 등이 있다.

대부분의 공감훈련프로그램은 주의 집중, 관점수용, 감정에 대한 인식 및 공감적 표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보적인 수준의 공감은 적극적 경청과 같다고 보아 주의집중이 필요하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입장에 자신을 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를 분석하고 인지해내는 관점수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

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과 더불어 적절한 공감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감을 삶의 '태도'로 보는가 아니면 의사소통의 '기능'으로 보는가 하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공감훈련의 내용도 달라진다. 공감을 삶의 태도로 보는 관점에서는 공감교육의 내용이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나 태도에 집중하게 되고, 대체로 정서적 요소를 중시한 경험적 교육이 이루어진다. 공감을 의사소통의 기능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대화기술이나 인지기능들에 집중하게 되어 의사소통 절차와 기법들을 훈련시키는 활동이 이루어진다(박성희, 2004).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은 공감할 줄 아는 역량을 길러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목표를 둔다(박성희, 2004 재인용).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공감훈련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의사소통요소에 따른 공감훈련프로그램을 토대로 구성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타인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공감훈련을 강조하였기에, 타인과의 의사소통 기능에 초점이 맞춰 치우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물을 재배하는 동안 식물과 감정적 공명을 일으키고 식물에 대하는 자세로부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하는 자세를 배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원예활동프로그램은 이경아(2010)의 공감훈련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주의 집중하기, 감정표현하기, 관점수용하기, 나-메시지로 전달하기, 공감표현으로 공감영역을 구성하고, 의사소통을 위하여 실제로 공감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집단활동으로 이루어졌다.

3) 공감과 원예활동과의 관계

국내에서 이루어진 공감훈련프로그램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민경(2006)은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공감한 내용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정서지능이 향상되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고소미(2007)는 공감훈련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관심 기울이고 경청하기, 나-메세지로 전달하기, 공감적 의사소통하기 등의 내용 요소들

이 또래 간 공격성을 억제하고 수용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여 갈등을 순기능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결과를 나타냈다.

이경아(2010)의 연구에서는 공감훈련프로그램을 통해 교우간의 신뢰감이 증가하여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근면성과 협동성, 책임감이 향상되어 사회에 적응능력이 향상한다고 하였다. 박혜진(2010)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바람이나 욕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아동에게는 자신의 느낌과 욕구에 대한 내면탐색을 이루어지는 자기공감과 타인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대인공감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긍정적 자아성장과 교우관계가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식물을 돌보고 기른다는 것은 식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식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관찰하게 되어 식물이 잘 자라도록 하는 과정이다. 기르기 과정을 통해 주의력과 관찰력은 향상되고, 식물이 필요한 것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자연 습득되어 더 나은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가며 사회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Matsuo, 2005). 이푸른(2010)의 연구를 살펴보면 오감자극의 단계별 적용에 따른 원예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위축, 불안, 비행, 공격 등의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Relf(1992)에 의하면 아동은 식물의 성장을 목격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주기를 빗대어 통찰해 볼 수 있으며, 새롭게 배운 행동들과 기술들은 개인적 역량으로 통합되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식물이 자라고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치유와 만족감을 얻게 되면서 자기 행동을 강화하고 자존감이 향상되는 등 자아성장이 이루어진다(Matsuo, 2005).

원예치료에서 생명을 다루는 생태학적 태도는 자연의 관점에서 모든 생명체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하나의 연대공동체로서 깨달을 수 있도록 확장한다. 그래서 원예활동을 하면서 대상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를 갖추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상황에 따라 언어적·비언어적 방법으로 표현하며, 서로 공감하게 된다(임은애, 2010).

이와 관련해서 손선녀(2008)는 식물번식 프로그램의 적용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생명존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인간이 자연환경을 마음대

로 해석는 안된다.’, ‘곤충과 식물의 소중함과 아픔에 대한 인식’에서 공감의식이 유의하게 나타나 생명존중 의식이 향상됐음을 보여주었다. 남조은(2009)의 연구에서는 스스로 파종하고 재배한 식물을 수확하고 나누는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자기통제력 및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식물을 자르고, 다듬고, 뽑고, 장식하는 창조적 파괴활동을 통해 부정적 감정(분노, 우울, 불안)들을 분출하고 나면 긴장이 이완되고 안정감 속에서 기쁨과 희열과 같은 긍정적 정서로 경험하게 된다(손기철 외 4인, 2006). 김은영(2009)의 연구에서는 원예활동을 하는 동안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감정 조절을 경험함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잘 전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쉽게 공유하게 만들 수 있어 사회성 향상에도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윤은주(2011)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예활동이 대인관계와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어 학교적응에도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원예활동이 식물과 개인이 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관심과 주의집중이 이루어지고, 정서조절 능력의 향상, 의사소통 기술의 습득 등 공감훈련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원예활동이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식물을 재배하므로 식물과의 관계에서 익힌 공감태도는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원예활동의 선행연구에서는 ‘공감’을 변인으로 연구된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경아(2010)의 공감훈련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공감훈련영역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원예활동을 통해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3. 대인관계만족도

1) 대인관계 발달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생활하고 성장한다. Heider(1964)에 따르

면 대인관계는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습관으로, “자신이 타인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타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타인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식을 사용하는가, 타인이 무슨 행위 또는 생각하기를 기대하는가, 타인의 행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정의하고 있다(김경자, 2006 재인용).

류혜성(2010)은 대인관계는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지각을 바탕으로 자신이 재구성한 행동을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사고양상과 그에 따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행동 간의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유아기에는 가족범위에 한정되던 대인관계가 아동기에 접어들면서 교사,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환경이 확장됨에 따라 대인관계가 폭넓어지는 시기이다. Erickson(1963)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제공되는 과제나 친구관계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근면성을 발달해간다. 그렇지만, 또래와 비교하여 스스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학업에서 만족할만한 성취를 경험하지 못할 때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Piaget(1969)는 학령기의 아동은 구체적 조작이 가능해지면서 자기중심적인 언어와 사고로부터 차츰 벗어나게 되는데,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자아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Laura, 2007).

Sullivan(1953)는 대인관계를 강조하여 상호성, 공유하기, 상대방에 대한 관심으로의 전환에 필수적으로 작용하며, 친밀한 대인관계의 경험이 개인 성장과 사회화에 기여한다고 보았다(David, 2002). 즉, 아동기에 친구, 부모, 교사를 비롯한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지지와 친밀감은 또 다른 대인관계를 시도하게 만들고, 아동의 자존감을 향상시켜주므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동기요인이 된다(김경자, 2006).

그러나 소외, 무시당하는 경험은 낮은 자존감, 자격지심, 무력감, 우울 등을 가져오며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송우선, 2008). 초등학교 시기에 경험하는 대인관계 양식이 개인의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람들과의 만족스러운 관계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대인관계에 있어 대인관계 만족도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말하며,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 친구, 부모 및 교사와 같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기대하는 요구 수준에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 지를 의미한다(은혁기, 1999).

초등학교 초기에 형성되는 또래관계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소속감과 친밀감이 강해지며 또래들로부터의 인정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아동들이 집단 소속감과 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행동양식을 익히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대인관계만족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예활동이 대인관계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2) 대인관계만족도와 원예활동과의 관계

대인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종합한 결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통적으로 강조한 하위요인들은 자기이해, 타인이해, 의사소통, 자기개방, 공감적 이해, 자아, 수용, 일반적 대인관계만족도, 부모와의 대인관계만족도, 교사와의 대인관계만족도, 친구와의 대인관계만족도가 있다(류혜성, 2010).

은혁기(1999)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만족도와 자기인식 및 대인기술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고 대인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상호친화적 능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송우선(2008)은 초등학생을 위한 학급단위의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의 하위요소(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가 향상되었는데 특히 이해성과 의사소통에서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김진옥(2010)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향상 기술(이해, 의사소통방법, 공감, 갈등해결, 자신의 표현)을 학습하고 일반적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에까지 적용해보는 대인관계향상 훈련을 통해 초등학생의 능동적 갈등완

화 방식과 대인관계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ordon(1975)에 의하면 ‘나’라는 메시지는 서로 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고 높은 수준의 신뢰가 있을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다. 타인의 행동이 수용될 수 없고 자신에게 아주 불쾌한 감정을 줄 경우에 개인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타인에 의해 상처를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감정과 관련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의사소통방법의 하나인 나-메시지 전달법은 대인관계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 만족도의 구성요소를 ‘부모’, ‘친구’, ‘교사’, ‘일반인’으로 보고, 대인관계 향상훈련 내용으로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 공감, 바람직한 자기표현(나-메시지 전달하기), 의사소통 기술 익히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이 원예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대상자↔식물, 치료사↔대상자, 대상자↔대상자 간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손기철 외 4인, 2006). 원예활동 중에는 쉽게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공동작업을 통해 주어진 개인의 역할이 더욱 뚜렷해지고 집단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재발견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 서로의 개별성을 존중하며 협력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손기철 외 4인, 2006; 송도영, 2008). 그리고 공통체험, 공유학습을 통하여 이타적인 체험의 장이 된다(손기철 외 6인, 2002).

그리고 원예활동은 비위협적이고 비경쟁적인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긴장과 불안이 이완되고 갈등을 해결하는 등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의사소통의 기회가 제공된다(배슬기, 2005; 박지혜, 2006). 기존의 원예활동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집단 활동이나 집단프로그램이 대인관계나 또래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수많은 연구의 결과로 보고된 바 있다(김혜경, 2006; 송도영, 2008).

살아있는 식물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형성되는 자연친화적 태도는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자연과 식물, 인간생활 환경개선 등 의미 있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

어 나가며 하나의 상부상조 공동체로 발전해 간다. 또한 식물이 성장하고 변화하여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는, 스스로 만든 예술품과 수확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자존감을 높임과 동시에 사회적 성장을 촉진시킨다(Matsuo, 2005).

이와 관련된 원예활동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영애(2008)의 연구에서는 식물의 단계별 생육에 따른 모델을 구성하여 적용한 결과, 생명력 발견과 정서반응, 생명의 적응력에 대한 관찰, 식물의 생명력 인식을 바탕으로 자아성장 의지 표현 등의 변화과정을 통해 자기와 타인 및 관계에 대한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야외학습이나 식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개념과 사회성 발달을 향상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박지혜, 2006; 남조은, 2009).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아동은 식물 재배과정을 통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식물 생육주기와 비교하여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협동과 협력이 요구되는 공동작업과 가까운 지인이나 일반인들과의 수확물 교류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두레의식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 과정에서 타인과 교류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함양하고 대인관계기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예활동과 공감훈련프로그램을 초등학생에게 실시하여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주시에 위치한 I 초등학교 6학년 4개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집단 2개반, 비교집단 2개반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인원은 실험집단 49명(남 24명, 여 25명), 비교집단 51명(남 29명, 여 22명)으로 총 100명이다.

2. 연구기간 및 절차

연구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이며, 학교수업 중 특별 및 재량 시간(주 2회)에 총 16회기의 공감훈련을 적용한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위의 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실험설계로서 연구설계 모형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설계모형

	프로그램실시 전		프로그램실시 후	
실험집단	O1	X	O2	
비교집단	O1		O2	

X: 공감훈련을 적용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적용

O1: 공감, 대인관계만족도 사전검사

O2: 공감, 대인관계만족도 사후검사

3. 측정도구

1) 공감검사

공감검사는 Davis(1980)의 IRI(대인관계반응지수)척도를 토대로 신경일(1994)이 수정하여 상담자의 공감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공감척도를 송호연(1999)이 아동의 수준에 맞게 다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표 III-2>와 같이 총 39문항으로 관점수용, 공감적 관심, 정서적 공명과 같이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점수용이란 공감의 인지적 요소로 타인의 관점을 취해봄으로써 대안적 관점을 취해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정서적 공명은 공감의 정서적 요소로서 대상과 동일한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반응이다. 공감적 관심은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부정적 경험을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대리적 정서이다.

각 문항은 5점(매우 많이 그렇다), 4점(많이 그렇다), 3점(대체로 그렇다), 2점(약간 그렇다), 1점(전혀 아니다)의 5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역문항은 반대로 채점된다. 점수는 39점~195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송호연(1999)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 .80$ 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78$ 으로 나타났다.

<표 III-2> 공감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관점수용	1,7,9*,12,16*,20*,27*,30,37,39	10
공감적 관심	2*,5,10,13,14,17*,18*,21*,22,23,25,26, 28*,29,31*,32,33,34*,36	19
정서적 공명	3,4,6,8,11,15*,19,24*,35,38	10
계		39

*역문항 채점

2) 대인관계만족도 검사

대인관계만족도 검사는 은혁기(1999)가 기존의 검사지를 기초로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일반적인 대인관계 만족도 문항은 인간관계변화척도(Schlin & Guerny, 1971)를 이형득과 문선모(1982)가 변안하여 사용한 검사 중 일반적인 만족도와 관련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와의 만족도 문항은 Fels

연구소의 부모행동 평정척도를 번안한 김재은(1974)의 “가정환경진단척도” 중 부모와의 만족감과 관련된 것을 사용하였다. 교사 및 친구와의 대인관계 만족도 문항은 조종형(1984)의 “학교생활 적응검사지” 중에서 교사와 친구와의 만족도와 관련된 것을 사용하였다.

은혁기의 대인관계만족도 검사는 <표 III-3>와 같이 총 26문항으로 일반적인 대인관계 만족도, 부모와의 대인관계 만족도, 교사와의 대인관계 만족도, 친구와의 대인관계 만족도와 같이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매우 그렇다), 4점(그렇다), 3점(보통이다), 2점(아니다), 1점(전혀 아니다)의 5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역문항은 반대로 채점된다. 점수는 26점 ~ 13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은혁기(1999)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 .87$ 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91$ 로 나타났다.

<표 III-3> 대인관계만족도 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일반적인 대인관계 만족도	1,2,3,4,5	5
부모와의 대인관계 만족도	6,7,8 *,9,10 *,11 *,12 *	7
교사와의 대인관계 만족도	13,14 *,15 *,16 *,17,18,19	7
친구와의 대인관계 만족도	20 *,21,22,23 *,24,25 *,26 *	7
전체		26

*역문항 채점

4. 원예활동 프로그램 구성

1) 프로그램 재구성의 준거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적용 주제를 ‘공감’으로 설정하고, 지식적-경험적 훈련방법(Carkhuff, 1969)과 대인 실험실 훈련 모형(Egan, 1976)을 토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성된 이경아(2010)의 공감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주의집중, 관점수용, 감정표현, 나-메시지 전달, 공감표현 등으로 공감훈련영역을 나누었다.

그리고 원예활동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성 효과가 검증된 기존 원예활동 중에서 공감훈련영역에 따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활동들을 선택하여 구성하였다(손기철외 4명, 2006; 2008; 김은영, 2009; 문학상, 2009).

프로그램 재구성의 준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1식물을 직접 길러봄으로써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식물과의 교류를 통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킨다. 아동들의 흥미와 주의집중력을 고려하여 식물 성장의 변화주기가 짧은 식물을 이용한 원예활동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그리고 식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과 식물이 공존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원예활동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둘째, 자신의 감정에 기준하여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므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공감의 기초라 할 수 있다. 이에 오감을 자극하고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원예활동으로 구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타인의 정서를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활동들이 후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원예활동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셋째, 긍정적 정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동이 스스로 활동재료나 표현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양한 성공 경험을 제시할 수 있는 원예활동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넷째,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공감적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경험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이를 위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수용해주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반응을 할 수 있는 원예활동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집단활동을 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소집단 활동 위주로 원예활동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하여 책임감을 갖고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는 공동작업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2) 프로그램의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예활동 프로그램은 들어가기(1회기), 주의집중 및 공감적 관심(2~4회기), 감정표현 및 관점 수용(5~9회기), 나-메시지 전달 및 공감표현(10~15회기), 마무리(16회기)단계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와 구체적 내용은 <표 III-4>와 같다.

들어가기 단계에서는 원예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원예작물들을 관찰해 보고, 식물 생육주기를 이용한 몸풀기를 진행하였다. 주의집중 및 공감적 관심 단계에서는 식물 기르기의 사전경험으로서 짧은 생육주기를 가진 새싹채소를 길러보고, 성장관찰을 유도하며 자신의 감정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압화 관찰노트를 만들었다. 감정표현 및 관점수용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1인 1식물을 기르기 위한 토피어리를 만들어 식물과의 교감을 시작하였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였다.

나-메시지 전달과 공감표현 단계에서는 집단활동 위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켰다. 또한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서로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는 원예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동안의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총정리하면서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구성되었다.

<표 III-4> 원예활동 프로그램 구성

회기	공감훈련 영역	원예활동명	목표 및 내용
1	들어가기	원예활동 소개	목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서로 친해지기 • 식물의 생애를 표현한 몸풀기 • 원예란 무엇인가? • 원예 종류별 관찰 • 조별이름 짓기
2	주의집중 /공감적 관심	우리가 지킬 것은 우리가 정해요.	목표: 책임의식 자각 및 집단 단결하기 • 손바닥 프린팅에 스스로 정하는 규칙 5가지. • 우리반 약속나무 만들기
3		새싹채소 심기	목표: 식물에 대한 공감적 관심유도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 형성 • 새싹채소 씨앗을 관찰하고 재배용기에 파종하기 • 식물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4		식물 관찰노트	목표: 자신과 식물과의 탄생 대입을 통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체험하기 • 압화로 꾸미는 세상에 하나뿐인 관찰 노트 만들기 • 식물을 관찰하며 느낀점을 노트에 표현하기 • 나의 탄생과 생애 초기 탐색하기
5		나만의 토피어리 친구만들기 I, II	목표: 나만의 식물 기르기를 통한 본격적인 공감 교류 및 책임감 형성하기 • 토피어리 만들기 • 식물 이름 붙여주기/ 식물에 성장에 대한 소망과 상상하기 • 식물과 친해지기/ 식물 관리하는 법 알기
6	감정표현 /관점 수용	새싹채소 수확	목표: 노력하는 과정과 노력한 만큼의 성취감 느끼 기. 서로 돕는 공동체 생활의 필요성 알기 • 새싹 채소 수확하여 맛보기 •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것과 우리가 살아가면 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7		장미 한송이 포장	목표: 다양한 정서반응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지 및 표현하기 • 오늘 하루동안 내가 느낀 감정 표현하기 • 내 기분을 나타내는 장미를 선택하여 포장하기
8			

<표 III-4> 계속

회기	공감훈련 영역	원예활동명	목표 및 내용
9	감정표현 /관점 수용	친구의 표정을 알아맞춰 볼까요	<p>목표: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수용하여 표현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알기 • 친구가 표현하는 감정표정을 색모래로 표현해 보자. • 타인의 표정을 보고 감정 알아맞추기
10	나- 메세지 전달 /공감 표현	내 친구는 00꽃이래요~	<p>목표: 자신과 타인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공감적 지지와 격려를 통한 자신감 키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의 장점을 닮은 꽃 찾아 칭찬하기 • 자신의 장·단점 알아가기
11		내 장점은 ~랍니다.	<p>목표: 자신의 장점을 자각하고 자기존중의 시간을 보내면서 긍정적 메시지 작성을 통한 내적 지원체계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게 보내는 긍정적 메시지 책갈피로 만들기 • 친구들의 긍정적 메시지를 메아리 쳐주기
12		단점은 장점으로!	<p>목표: 부정적 자기 표출 및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서로 지지해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잎을 움츠리고 독한 향을 뿜듯이 자신의 단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사용하는 것들 찾아보기 •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다 같이 찾아보기 • 단점을 적은 낙엽을 부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표현토록 함.
13		솔방울 친구와 함께 만들어가요	<p>목표: 바람직한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자신의 긍정적 변화 기대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방울에 여러 가지 열매들과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인형친구 만들기 • 좋은 친구에 대해 집단 토론한 후, 자신이 되고 싶은 좋은 친구 발표하기

<표 III-4> 계속

회기	공감훈련 영역	원예활동명	목표 및 내용
14	나- 메세지 전달 /공감 표현	향기 풀풀~ 사랑이 풀풀~	<p>목표: 나 메시지 전달법을 통하여 타인에게 고마움 표현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의 다양한 이용성을 알고, 후감 체험하기 • 포푸리 주머니를 만들어서 감사의 글 적어 친구에게 선물하기
15		나의 동반자를 소개합니다.	<p>목표: 자기의 정서 표현 및 서로 기쁨을 나누며 공감대 형성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내가 가꾼 화분을 가지고 와서 친구에게 자랑하기 • 토끼어리를 키우기 위해 친구의 노력한 점들을 칭찬하기
16	마무리	꽃으로 만든 케이크 어때요?	<p>목표: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자신감을 갖고 생활에 적용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케이크를 만들고 프로그램동안 우리가 해낸 일들을 축하하기 • 프로그램동안 느낀 점 표현하기

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각 검사별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질집단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 간 사전 검사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동질성 검정 결과에 따라 이질집단으로 판단되어 원예활동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공분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정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에 있어서 동질의 집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에 대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만족도의 사전 검사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 검정 결과는 <표 IV-1>과 <표 IV-2>에 제시되었다.

<표 IV-1> 공감능력에 대한 사전 검사의 집단 간 동질성 비교

항목	실험집단($n=49$)		비교집단($n=51$)		$t(98)$
	\bar{X}	S	\bar{X}	S	
관점수용	31.65	5.46	30.31	4.62	1.327
공감적 관심	59.12	6.50	59.96	5.80	-.681
정서적 공명	24.49	4.70	24.37	5.38	.116
공감 전체	115.27	13.78	114.65	11.76	.242

<표 IV-2> 대인관계만족도에 대한 사전 검사의 집단 간 동질성 비교

항목	실험집단($n=49$)		비교집단($n=51$)		$t(98)$
	\bar{X}	S	\bar{X}	S	
일반적인 대인관계 만족도	18.18	3.65	18.55	3.48	-.512
부모와의 대인관계 만족도	28.31	4.75	28.27	4.94	.033
교사와의 대인관계 만족도	28.27	4.86	26.22	3.96	2.306*
친구와의 대인관계 만족도	27.14	4.95	27.53	3.71	-.443
대인관계만족도 전체	101.90	14.36	100.57	11.66	.509

* $p < .05$

대인관계만족도의 하위영역인 교사와의 대인관계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t=2.306, p<.05$)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이질집단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만족도에 대한 집단간 차이 검증은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2.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만족도검사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에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1) 공감능력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감능력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3>와 같다.

<표 IV-3> 공감능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집단 간 평균과 표준편차

항목	실험집단($n=49$)				비교집단($n=51$)			
	사전		사후		사전		사후	
	\bar{X}	S	\bar{X}	S	\bar{X}	S	\bar{X}	S
관점수용	31.65	5.47	33.37	4.76	30.31	4.62	30.06	4.41
공감적 관심	59.12	6.50	62.61	7.72	59.96	5.80	58.31	5.16
정서적 공명	24.49	4.70	27.69	5.24	24.37	5.38	24.29	5.11
전체	115.27	13.78	123.67	14.61	114.65	11.76	112.67	10.80

<표 IV-3>에 의하면, 공감능력의 사전검사에서 두 집단간의 점수가 0.62점의 차이를 보이고,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11점 높은 점수의 차이

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교집단에서는 사후 점수가 감소한 반면, 실험집단은 사후 점수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효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공감능력에 대한 집단 간 공변량분석

항목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관점수용	공변량(사전)	492.994	1	492.994	11.186**
	집단	180.730	1	180.730	
	오차	1567.217	97	16.157	
공감적 관심	공변량(사전)	780.097	1	780.097	15.503**
	집단	545.410	1	545.410	
	오차	3412.516	97	35.181	
정서적 공명	공변량(사전)	471.747	1	471.747	12.624**
	집단	280.230	1	280.230	
	오차	2153.250	97	22.198	
전체	공변량(사전)	2901.214	1	2901.214	21.222**
	집단	2882.865	1	2882.865	
	오차	13176.895	97	135.844	

* p<.05, ** p<.01,

공변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감능력의 총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 97)=21.222, p<.01].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에서도 관점수용[F(1, 97)=11.186, p<.01], 공감적 관심[F(1, 97)=15.503, p<.05], 정서적 공명[F(1, 97)=12.624, p<.01]에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따라서 원예활동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을 긍정적으로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2) 대인관계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인관계만족도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대인관계만족도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의 집단 간 평균과 표준편차

항목	실험집단(<i>n</i> =49)				비교집단(<i>n</i> =51)			
	사전		사후		사전		사후	
	\bar{X}	S	\bar{X}	S	\bar{X}	S	\bar{X}	S
일반적인 대인관계만족도	18.18	3.65	19.88	3.55	18.55	3.48	17.80	3.98
부모와의 대인관계만족도	28.31	4.75	29.51	4.27	28.27	4.94	27.24	5.90
교사와의 대인관계만족도	28.27	4.86	29.53	4.23	26.22	3.96	26.49	4.61
친구와의 대인관계만족도	27.14	4.95	28.96	4.31	27.53	3.71	26.96	4.44
전체	101.90	14.36	107.88	12.98	100.57	11.66	98.49	13.65

<표 IV-5>에 의하면, 대인관계만족도의 사전검사에서 두 집단간의 점수가 1.33점의 차이를 보이고,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9.39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교집단에서 교사와의 대인관계만족도를 제외하고는 사후 점수가 감소한 반면, 실험집단은 사후 점수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대인관계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공변량 분석

항목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일반적인 대인관계 만족도	공변량(사전)	209.237	1	209.237	10.076**
	집단	123.202	1	123.202	
	오차	1186.067	97	12.227	
부모와의 대인관계 만족도	공변량(사전)	750.898	1	750.898	6.622*
	집단	127.285	1	127.285	
	오차	1864.523	97	19.222	
교사와의 대인관계 만족도	공변량(사전)	607.750	1	607.750	6.230*
	집단	84.341	1	84.341	
	오차	1313.199	97	13.538	
친구와의 대인관계 만족도	공변량(사전)	655.438	1	655.438	9.855**
	집단	123.782	1	123.782	
	오차	1218.402	97	12.561	
전체	공변량(사전)	7291.883	1	7291.883	17.309**
	집단	1804.457	1	1804.457	
	오차	10112.127	97	104.249	

* p<.05, ** p<.01,

공변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인관계만족도의 총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 97)=17.309, p<.01$]. 대인관계만족도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대인관계만족도 [$F(1, 97)=10.076, p<.01$], 부모와의 대인관계만족도 [$F(1, 97)=6.622, p<.05$], 교사와의 대인관계만족도 [$F(1, 97)=6.230, p<.05$], 친구와의 대인관계만족도 [$F(1, 97)=9.855, p<.01$]에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따라서 원예활동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만족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원예활동프로그램에 공감훈련을 적용하여 초등학생의 공감 능력과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제주 I 초등학교 6학년 4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49명, 비교집단 51명을 선정하였다. 원예활동프로그램은 2011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주 2회로 총 16회기를 실시하였고, 이경아(2010)의 공감훈련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기존 원예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과 사후에 두 집단에게 공감검사와 대인관계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측정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을 긍정적으로 향상시켰음을 보여주었다. 실험집단은 공감능력과 그 하위영역인 관점수용, 공감적 관심, 정서적 공명에서 비교집단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아동이 식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공감적 체험을 통해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아동의 공감능력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토피어리를 만든 이후, 많은 아동이 자신의 토피어리 상태를 보고하며 궁금한 것을 해결하고 가정에서 재배하고 있는 다른 식물들까지 재배관리를 문의하는 등 자신이 기르는 식물뿐만 아니라 점차 다른 식물에도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식물을 기르고 가꾸는 과정이 생명존중 의식을 향상시켰다는 선행연구결과(손선녀, 2008; 남조은, 2009)와 일치하여 원예활동프로그램이 아동에게 생명에 대한 공감적 관심과 존중하는 태도를 키워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원예활동이 선행된 뒤

타인의 감정을 추론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현을 하는 활동이 뒤따르게 구성되었는데 이것이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처음에 아동은 자신의 감정표현이 서투르고 어색한 모습을 보였지만 원예활동이 진행될수록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횟수가 증가했다. 그리고 친구의 얼굴표정과 장점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친구의 새로운 면에 감탄하고 친구의 칭찬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말하는 아동이 많았다. 이는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김은영(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초등학교의 교육목표인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취지에도 부합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원예활동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만족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켰음을 보여주었다. 실험집단이 대인관계만족도와 그 하위영역인 일반적인 대인관계만족도, 부모와의 대인관계만족도, 교사와의 대인관계만족도, 친구와의 대인관계만족도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김은지 외 2인(2010)의 연구에서도 원예활동이 대인관계변화의 요인들 중 만족감 영역에서 큰 변화를 보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예활동프로그램이 끝난 뒤 아동은 ‘친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다’,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하였으며 집단속에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활동들이 긍정적 대인관계 경험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기주머니를 엄마에게 선물했더니 기뻐하시더라.’ ‘토피어리를 보더니 동생도 갖고 싶다고 줄라요.’와 같이 원예활동이 가족들과 의사소통의 계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꾸기 활동을 통한 식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친구에게로 전환되어 사회성이 길러졌다는 선행연구 결과(배슬기, 2005; 김혜경, 2006)와 모듬별 원예활동에서 또래 간 대화를 통해 사회성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김혜경,

2006; 송도영, 2008)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원예활동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대인 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대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감훈련을 적용한 원예활동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만족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감훈련프로그램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예활동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원예활동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공감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원예활동이 아동의 정서조절과 긍정적인 자아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 현장에서 인성개발, 교육활동 프로그램 및 심리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16회기의 중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지만 주 2회 실시하여 2달동안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그쳤으므로 장기적인 효과는 검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후 추후검사를 통해 원예활동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해야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제약상 추후검사를 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공감훈련프로그램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프로그램 효과의 정확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위의 제한점과 연구결과에 따라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실험대상을 제주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전 학년, 전국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아동이 아닌 대인불안증이 높은 아동, 자존감이 낮은 아동, 공격성향이 있는 아동 등 다양한 대상에게 원예활동을 적용하여 결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보통 식물의 생장주기는 1년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인내력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장기간 동안 식물과의 상호작용은 공감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기르기 쉽고 흥미가 유지될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하고, 오랜 기간 생육단계마다 식물재배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후검사를 통해 원예활동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실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방과 후 학교 수업이나 특별재량시간을 이용하여 원예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자연을 접촉할 수 있는 경험이 제공되므로 생명존중 인식 및 바람직한 아동의 인성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기존 공감훈련프로그램들이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집단토론, 역할극, 게임 등을 활용하며 아동들로 하여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시적이고 훈련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원예활동은 식물을 기르는 과정을 통해 공감적 사고와 정서를 체험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공감하는 삶의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공감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과 공감훈련을 적용한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소미 (2007). 게임중심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교우관계 및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경자 (2006). 협동적 조형 활동 집단상담이 아동의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 김은영 (2009). 정서지능 이론을 적용한 원예치료가 맞벌이 가정 아동의 EQ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김은진, 배은선, 정현호 (2010).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시설아동의 대인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10(6월), 155-157.
- 김진옥(2010). 대인관계향상 훈련이 초등학생의 갈등해결방식과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 김혜경 (2006) 모듬별 원예활동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남조은 (2009). 자연학교의 생태적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라우라, E. B. 저, 이옥경, 박영신, 이현진, 김혜리, 정운경, 김민희 역 (2009). 생애발달 I : 영유아기에서 아동기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 로저스, C. R. 저, 오제은 역 (2007). 칼 로저스의 사람-중심 상담. 서울: 학지사.
- 류혜성 (2010). 대인관계 만족도 증진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문학상 (2009). 원예치료가 시설아동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박성희 (2004). 공감학. 서울: 학지사.
- 박성희 (1997). 공감과 친사회행동. 서울: 문음사.
- 박지혜 (2006). 꽃과 채소 가꾸기 활동이 초등학교 아동들의 자아개념과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 박혜진 (2010). 자기공감이 선행된 공감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배슬기 (2005). 노작학습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서민경 (2006). 공감 및 자기표출훈련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친사
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 손기철, 박석근, 부희옥, 배공영, 백기엽, 이상훈, 허복구 (2002). 원예치료. 서울:
중앙생활사.
- 손기철, 조문경, 송종은, 김수연, 이손선 (2006). 전문적 원예치료를 위한 평가도
구 및 프로그램. 서울: 쿠북.
- 손기철, 조문경, 송종은, 김수연, 이손선 (2006). 전문적 원예치료의 실제. 서울:
쿠북
- 손선녀 (2008). 식물번식 프로그램의 구안·적용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생
명존중의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송도영 (2008). 교실원예활동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
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 송우선 (2008). 초등학생을 위한 학급단위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석사
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송호연 (1999).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공감과 도움행동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윤은주 (2011).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
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은혁기 (1999).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조절 집단상담이 청소년의 자
기인식, 타인인식, 대인기술 및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 이경아 (2010). 공감 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 능력, 교우관계 및 사
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 이옥희 (2010).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사회적 능력이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이푸른 (2010). 오감자극 원예치료프로그램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집중력 및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임은애 (2010). 원예치료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최영애 (2008). 원예치료실행에서 식물양육에 대한 이론적 모델.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한정희 (2005).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공격성과 외로움 수준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 허영숙 (2010). 초등학생의 공감하기, 체계화하기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David R. S. (2002) *Childhood and Adolescence(6th edition)*. Stamford: Thomson Learning.
- Erickson, M. M. (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ition)*. New York: Norton.
- Gordon, T. (1975). *Teacher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Wyden.
- Laura E. B. (2007).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4th edition)*. London: Pearson Education Korea Ltd.
- Matsuo, E. (2005). *Recommendation of the horticulture, environment, education, welfare, gardening of district*. Tokyo: Nongmin.
- Mattson, R. H. (1982). *A graphic definition of the horticultural therapy model*. Manhattan: Kansas State University Press.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becca, L. H. & Christine, L. K. (2006). *Horticultural therapy methods: making connections in health care, human service and community programs*. New York: Haworth Press.
- Relf, D. (1992). *The role of horticulture in human well-being and social development: A national symposium*. Portland, CA.: Timber Press.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정·교과서 정보서비스(2009).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실
과(기술·가정) 교육과정. cutis.mest.go.kr
한국방정환재단(2010). 2010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보고서. www.korsofa.org

<Abstract>

The Effects of Horticultural Therapy On Empathy
and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eo, Yu Mi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ang S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which applied empathy training program affects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satisfaction.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psychotherapy programs which could promote personal developmen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 children.

To verify this purpose, 4 sixth grade classes from I elementary school in Jeju were selected. Two classes were designated as the experimental group while the others were designated as the control group. They were composed of 100 students(the experimental group n=49, the control group n=51). The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referred to Lee, Kyung A's empathy training program and consisted of plant growing and group activities.

The program consisted of a total of 16 sessions which were conducted for the experimental group twice a week from October to November in 2011. With regards to test tools, the empathy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 satisfaction tests were administered to the two group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rough the t -test, mean, standard deviation and the analysis of covariance(ANCOVA) using SPSS/Windows version 18.0.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experimental group treated by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empathic ability and its sub-factors: perspective taking, sympathy interest, emotional sympath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hildren developed more empathy and affection for their friends through plant growing.

2. The experimental group treated by the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satisfac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 and its sub-factors: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with general people,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hildren developed more communication and enhance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rough group activitie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applying empathy has a positive effects on the empathic ability and the satisfac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 It is expected that a more in depth and varied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will prove its effectiveness and be introduced in schools and psychotherapy.

부 록

부록 1. 원예활동 프로그램

부록 2. 질문지

(공감검사, 대인관계만족도검사)

부록 3. 원예활동 학습지

부록 4. 원예활동 사진

부록 1. 원예활동 프로그램

회기	1	활동명	원예활동 소개				
		장소	교실	일시	10/4, 10/5	대상	초등학교 6학년(일반)
목표	프로그램 소개를 통한 이해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집단구성원간의 친밀감을 형성한다.						
준비물	과일, 채소, 꽃, 명찰, 싸인펜						
단계	동작 표준화과정	실행과정	치료사의 기술과 기법				
1	몸풀기놀이를 한다.	자신의 몸을 식물에 비유하여 치료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계절에 따른 식물의 생활주기로 아동들이 식물을 대리 경험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2	자기명찰을 만든다.	색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원하면 꾸밀 수 있다.	돌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시간을 갖는다.				
3	원예에 대해 알아본다.	‘원예’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	알고 있는 학생에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모르는 경우는 ‘식물’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접근한다.				
4	원예작물을 관찰한다.	원예작물들을 원 가운데에 펼쳐놓고 무엇들이 있는지 관찰하고 알아 맞춰본다.	아이들이 말하는 것에 공감적 반응하고 종합적으로 이야기 해서 마무리한다.				
5	원예작물을 분류한다.	몇몇 대표학생들이 원예작물들을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최종적으로 치료사가 과수, 화훼, 채소로 분류하며 설명한다.	분류하는 것이 능숙할 경우에는 긍정적 반응을, 분류를 힘들어 할 경우에는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지지체계를 세워준다.				
6	원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다.	원예의 올바른 뜻을 설명하고, 식물과 원예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질문을 통해 이해여부를 확인한다.				
7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앞으로 진행 될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프로그램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감을 물어보며, 프로그램에 대한 호기심을 유도한다.				
8	조별로 조명을 짓는다.	조별끼리 모여 프로그램동안 불러질 조명을 짓고 발표한다.	조명이 갖고 있는 의미를 구체화시켜준다.				
9	마무리한다.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을 이끌 치료사의 다짐과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아동들의 협조의 필요성을 안다.				

회기	2	활동명	우리가 지킬 것은 우리가 정해요				
		장소	교실	일시	10/6,10/7	대상	초등학교 6학년(일반)
목표	스스로 정하는 약속을 통한 자기결정력과 책임의식을 높인다.						
준비물	나무기둥 종이, 녹색 종이, 가위, 싸인펜, 핀						
단계	동작표준화과정	실행과정	치료사의 기술과 기법				
1	몸풀기 놀이를 한다.	아동이 한명씩 나와 '나 따라 해봐요, 요렇게' 동작을 실행하면 나머지 아동들이 따라한다.	시범을 먼저 보이면서 재미난 동작들을 시행한다. 수줍음을 타는 아동은 지지해주며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오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지킬 약속들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약속의 중요성이 앞으로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진지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한다.				
3	서약서 손바닥을 그린다.	2인1조가 되어 한사람을 손바닥을 대고 다른 사람이 손바닥을 따라 그리게 한 후, 손바닥을 올려낸다.	남녀 짝궁을 맺어 이성간의 거리감을 줄인다.				
4	5가지 약속을 적는다.	자신이 지키고 싶은 약속 5가지를 손가락마다 적어 넣는다.	거창한 약속이 아닌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간단한 약속들로 정하도록 한다.				
5	조별로 공통적인 약속을 찾는다.	조별로 자신이 적은 약속들을 공유하고, 그 중 3명 이상이 선택한 약속들을 모아 적는다.	각자 같은 생각,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한다.				
6	반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약속을 찾는다.	조별로 대표가 약속을 발표하고, 2조 이상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약속들을 찾아 적는다.	공통적인 약속들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며, 약속들을 지킬 의향이 있는지 동의를 얻는다.				
7	우리반 약속나무를 만든다.	미리 준비된 나무 기둥에 각자의 손바닥 이파리들을 꾸며 넣는다.	양상한 나무에 이파리가 들어가자 풍성한 나무로 다시 태어났음→스스로가 정한 약속들을 지켜나갈 때 프로그램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음을 깨달도록 다짐한다.				

회기	3	활동명	새싹 채소 파종하기				
		장소	교실	일시	10/12,10/13	대상	초등학교 6학년(일반)
목표	생명체를 다루는 것을 통한 식물에 대한 공감적 관심을 갖고,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한다.						
준비물	새싹채소 씨앗, 틀, 거즈, 분무기						
단계	동작표준화과정	실행과정	치료사의 기술과 기법				
1	몸풀기 놀이를 한다.	아동이 한명씩 나와 ‘나 따라해봐요, 요렇게’ 동작을 실행하면 나머지 아동들이 따라한다.	지난번에 안한 친구들이 먼저 시작한다.				
2	오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채소 중에서 가장 빨리 자라날 수 있는 새싹채소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준의 설명만 간단히 한다.				
3	재배용기를 만든다.	씨앗파종할 용기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	구멍의 필요성을 유추해보도록 한다.				
4	거즈를 자른다.	씨앗파종용기에 맞게 거즈를 잘라 위에 올려놓는다.	거즈의 역할을 유추해보도록 한다.				
5	재배용기를 합체시킨다.	커다란 투명용기에 거즈를 올린 씨앗파종용기를 집어넣는다.	예를 보여준 후 아동이 직접할 수 있도록 한다.				
6	새싹채소 씨앗을 관찰한다.	채소씨앗들을 종류별로 관찰한다.	비슷하게 보이면서도 조금씩 다른 씨앗 식물이 다 자라면 각자 다른 모습을 하게 됨을 인식한다.				
7	새싹채소 씨앗을 파종한다.	씨앗을 씨앗파종용기에 골고루 뿌려준다.	골고루 펼쳐서 뿌려주는 이유에 대해 유추해보도록 한다.				
8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들을 알아본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필요한 환경조건(햇빛과 물, 장소)들을 알아본다.	용기의 투명함, 구멍을 뚫은 이유 등을 통해 식물이 필요한 것의 대한 답을 찾도록 한다. 어떤 곳에 용기를 두고 키워야할지도 고민해보도록 한다.				
9	씨앗에 물을 뿌린다.	재배용기 안에 분무기로 물을 골고루 뿌려준다.	매일 새싹채소에 물주는 방법을 스스로 정하도록 한다.				

회기	4	활동명	식물관찰노트				
		장소	교실	일시	10/14,10/15	대상	초등학교 6학년(일반)
목표	자유롭게 표현되는 작품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만의 관찰노트로 활동에 대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자신의 성취한 바를 언제든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준비물	노트, 압화, 목공품, 이쑤시게, 코팅지						
단계	동작표준화과정	실행과정	치료사의 기술과 기법				
1	지난번 새싹채소의 상태를 확인한다.	싹은 났는지,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관찰해보고 말해본다.	재배를 위해 노력한 점들을 칭찬하며, 앞으로의 전개를 상상하게 해서 동기를 촉진한다.				
2	오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자신만의 관찰노트를 만들 것임을 설명한다.	노트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압화노트 샘플을 보여주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을 유도한다.				
3	압화에 대해 설명한다.	압화의 정의와 만드는 방법, 이용법 등을 설명한다.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설명한다.				
4	압화로 원하는 모양을 만든다.	자신의 노트에 압화꽃들을 배열하고, 풀을 이용하여 꽃들을 붙인다.	꽃 선택은 자유지만, 숫자에는 제한을 두도록 한다. 창의적인 표현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해준다.				
5	코팅지로 압화꽃들을 덮는다.	노트 크기에 맞춰 코팅지를 자른 후 압화꽃 위에 붙인다.					
6	자기 노트를 자랑한다.	조별로 자신이 만든 노트를 자랑해본다.					
7	노트의 이용방법을 안다.	한쪽 면은 앞으로 자신이 키울 화분의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할 것이고, 다른 쪽 면은 프로그램마다 활동한 것들을 기록하게 될 것임을 설명한다.	여러번의 반복질문을 통해 노트의 활용법을 확실히 인지토록 한다.				
8	오늘의 과제를 설명한다.	다음주 내 식물에게 지어줄 애칭을 정해서 관찰노트 첫 번째면에 기록해오도록 한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을 내기 시작하면 스티커를 이용한 강화기법을 사용한다.				

회기	5,6	활동명		나만의 토피어리 친구 I, II							
		장소	교실	일시	10/20,10/21 (2시간)	대상	초등학교 6학년(일반)				
목표	안전히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생명체에 대한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										
준비물	실내식물(아이비), 수태, 고정줄, 눈, 코, 화분받침대										
단계	동작표준화과정	실행과정		치료사의 기술과 기법							
1	지난번 새싹채소의 상태를 확인한다.	싹은 났는지,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관찰해보고 말해본다.		노력한 점 칭찬하고, 앞으로의 전개를 상상하게 해서 동기를 촉진한다.							
2	오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자신이 앞으로 키울 식물을 심은 화분을 만들 것임을 알려준다.		1일 1식물을 통해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토피어리 샘플을 보여주어 이해를 돕고, 관심을 유도한다.							
3	토피어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토피어리의 기원, 종류 등을 설명한다.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설명한다.							
4	토피어리 귀를 만든다.	와이어 2개를 U자로 구부린 후 수태로 감싸고 고정줄로 감아준다.		토피어리 만들기 순서를 정리한 PPT를 보면서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이 필요한 만큼만 아동에게 제공한다. 다른 모양을 원하는 아동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식물을 식재하면서 얼굴부분을 만든다.	수태를 넓게 펼친 가운데에 식물과 흙, 영양분을 넣은 후 둥글게 수태를 감싸면서 고정줄로 감아준다.									
6	얼굴부분과 귀부분을 합친다.	얼굴부분에 귀부분을 꿰고 고정줄로 감아준다.									
7	입부분을 만든다.	얼굴 앞면에 수태를 조금 더 감싸면서 입부분을 형태를 만든 후 고정줄로 감아준다.									
8	눈,코, 리본을 장식하며 마무리 한다.	다 만들어진 토피어리에 눈, 코를 붙인 후, 리본으로 꾸며준다.									
9	자신의 식물에게 애칭을 지어준다.	지난주 과제로 제시했던 애칭으로 자신이 만든 토피어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는 발표 시간을 갖는다.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10	오늘의 과제를 설명한다.	오늘 경험한 것들을 식물관찰 일지에 기록한다. 아이비에 대해 조사한다.						식물을 만들며 느낀 점, 식물의 성장에 바라는 점 등을 작성한다. 키울 식물에 대한 조사를 해봄으로써 식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회기	7	활동명	새싹채소 수확				
		장소	교실	일시	10/25,10/26	대상	초등학교 6학년(일반)
목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노력한 만큼 성취한 기쁨을 충분히 경험한다. 활동지를 이용하여 서로 돕는 공동체 생활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준비물	접시, 활동지						
단계	동작표준화과정	실행과정	치료사의 기술과 기법				
1	지난 프로그램을 회상한다.	아이비 과제를 발표하고 관리법을 이야기 나눈다.	토피어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준다.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 발표시간이 있음을 상기시켜줌으로써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형성토록 한다.				
2	다 자란 새싹채소를 관찰한다.	새싹종류에 따른 성장모습(잎의 모양, 길이 등)을 관찰한다.	씨앗상태일 때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성장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공감적 반응대를 형성토록 한다.				
3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들을 알아본다.	식물이 자라는데는 햇빛과 물이 필요하다.	우리가 재배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유추해본다.				
4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본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고, 스스로 가능한 것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 조별로 토의한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과제로 제시한다. 잘 진행이 되는지 돌아다니며 확인하며, 적극적인 토론에 참여토록 유도한다.				
5	조별로 발표한다.	공통적인 것들을 활동지에 적은 뒤 집단에서 발표한다.	식물에게 필요한 것들과 비교하며 공통점들을 연결한다.				
6	새싹채소를 수확해서 맛을 본다.	세가지 채소의 모양과 맛이 다른 것을 구별하여 활동노트에 기록해본다.	가장 강한 맛을 지닌 무순부터 시작하여 자극을 준다.				
7	오늘의 과제를 설명한다.	오늘 먹은 새싹채소의 맛을 비롯하여 경험한 것들을 식물관찰일지에 기록한다.	새싹채소를 기르는 과정을 다시 한번 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회기	8	활동명	내 기분을 담은 장미한송이				
		장소	교실	일시	10/27,10/28	대상	초등학교 6학년(일반)
목표	기분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려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준비물	감정카드, 장미, 포장지, 리본						
단계	동작표준화과정	실행과정	치료사의 기술과 기법				
1	오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오늘은 기분에 대해서 알아갈 것임을 설명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호기심을 유도한다.				
2	자신의 기분을 알아차린다.	오늘 하루동안 자신이 느꼈던 기분을 생각해보고, 활동지에 자신이 느꼈던 모든 기분들을 색깔로 칠해본다.	아동들이 모두 이야기를 마치면 추가적인 기분 표현 단어를 제공해준다.				
3	기분을 느끼던 상황을 고찰한다.	각 기분마다 그것을 느끼게 된 상황을 노트에 적어보도록 한다.	'~상황에서 ~해서 ~기분을 느꼈다'로 표현하도록 한다.				
4	장미를 선택한다.	기분에 맞는 색깔의 장미를 선택한다.	다양한 기준에 따른 색깔별로(좋아하는 색+싫어하는 색, 차가운 색+따뜻한 색, 색상별 의미 등) 기분을 표현할 수 있음을 설명해준다.				
5	장미를 포장한다.	포장지를 크기에 맞춰 자른 후, 장미를 조심스럽게 포장한다.	모델링을 통해 포장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앞에서 제시해주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한다.				
6	리본을 만든다.	치료사가 시범을 보이면 그것에 맞춰 리본을 만든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리본을 만들어도 무방하다. 리본색상을 다양하게 하여 리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	오늘의 과제를 설명하고 마무리 한다.	이번 주말동안 느낀 기분들을 노트에 작성한다. 기분이 안 좋은 날 장미비누를 이용한 세수를 통해 기분이 변화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긍정적 정서를 체험한다. 또는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은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는 기회가 된다.				

회기	9	활동명	친구의 표정을 알아 맞춰 볼까요?				
		장소	교실	일시	11/1,11/2	대상	초등학교 6학년(아동)
목표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표정을 관찰함으로써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관점 수용하는 자세를 기른다.						
준비물	여러 가지 색모래, 종이, 풀						
단계	동작표준화과정	실행과정	치료사의 기술과 기법				
1	화분 상태를 보고한다.	나만의 화분에 심은 식물의 상태가 어떤지 설명한다.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식물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준다.				
2	감정카드를 알아맞춘다.	PPT를 이용한 감정카드를 아동들에게 제시하면서 무슨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맞춰보도록 한다.	정답을 말하면 그것과 적절한 상황에 대해 과제수행한 것에서 찾아 발표하도록 한다.				
3	2인 1조를 만든다.	책상을 마주보게 한 뒤에 앉는다.	자리를 우선 이동하여 아동들이 섞이도록 유도한다.				
4	친구의 표정을 표현한다.	한명은 모델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표정을 짓고, 나머지는 표정을 관찰하면서 표현한다. 표정을 스케치 한 뒤 플로라인을 칠한다. 다양한 색모래로 덮어준 뒤 털어줘서 표정만 남도록 한다.	예시를 보여주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애매한 표정을 짓는 아동들에게는 좀더 분명한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촉진한다.				
5	친구의 표정을 알아맞춘다.	친구가 짓고 있는 표정을 살펴보고 현재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알아맞춘다.	이제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도 상대방의 기분을 자신있게 알아차릴 수 있음을 강조한다.				
6	오늘 과제를 설명하고, 마무리한다.	다음 시간까지 어떤 표정을 가장 많이 짓고 싶은지 물어보면서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한다.	반 친구들을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관찰토록 하여 구성원간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회기	10	활동명	내 친구는 00꽃이래요~				
		장소	교실	일시	11/3,11/8	대상	초등학교 6학년(일반)
목표	꽃마다 지닌 특성에 따라 친구의 장점을 닮은 꽃들을 찾아내서 친구를 칭찬해봄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칭찬을 수용하면서 긍정적 정서경험을 갖는다.						
준비물	꽃사진, 색리본						
단계	동작표준화과정	실행과정	치료사의 기술과 기법				
1	지난번 프로그램에 대해 되돌아본다.	일주일동안 자신이 정한 표정을 짓었는지 발표한다.	긍정적 피드백 제공				
2	오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친구와 닮은 꽃을 찾아 칭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꽃점 도사놀이'로 구성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규칙을 제시하여 준법의식을 향상시킨다.				
3	다양한 꽃들에 대해 알아본다.	꽃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설명한다.	꽃의 독특한 특성들과 사진이 같이 있는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해를 돕는다.				
4	자리를 배치한다.	둘줄로 된 원을 만들어서 앞뒤로 2인1조 짝궁이 되도록 한다.	자리를 무선 이동하여 아동들이 섞이도록 한다.				
5	친구의 장점을 닮은 꽃을 찾는다.	본인이 생각하는 친구의 장점을 탐색하고 장점 특성을 지닌 꽃을 찾는다.	몇몇 아동들의 행동 특성으로 추론하여 장점을 찾는 방법을 예시로 보여준다.				
6	친구의 장점을 이야기 해준다.	친구에게 닮은 꽃을 보여주며 장점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감정을 교류한다.	칭찬을 해주는 아동도 칭찬을 듣는 아동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장점이여야 함을 강조한다. 장점을 이야기해주는 방식은 '내가 보기에는 평소 네가 ~행동을 많이 해서 ~꽃의 ~점과 비슷한 것 같애.'로 한다.				
7	다른 친구와 짝이 되어 장점을 찾는다.	자리 위치를 바꾸고 장점을 닮은 꽃찾기 활동을 되풀이 한다.	한번의 활동이 끝나면 자리를 무선 이동하여 반구성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8	오늘의 과제를 설명하고, 마무리한다.	친구가 찾아준 장점들과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들을 노트에 적어보면서 친구들이 이야기해준 장점들과 비교해본다.	여러 명의 친구들이 찾아준 똑같은 장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보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회기	11	활동명	내 장점은 ~랍니다.				
		장소	교실	일시	11/3,11/8	대상	초등학교 6학년(일반)
목표	꽃마다 지닌 특성에 따라 친구의 장점을 닮은 꽃들을 찾아내서 친구를 칭찬해봄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칭찬을 수용하면서 긍정적 정서경험을 갖는다.						
준비물	꽃사진, 색리본						
단계	동작표준화과정	실행과정	치료사의 기술과 기법				
1	지난번 프로그램에 대해 되돌아본다.	일주일동안 자신이 정한 표정을 짓었는지 발표한다.	긍정적 피드백 제공				
2	오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친구와 닮은 꽃을 찾아 칭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꽃점 도사놀이'로 구성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규칙을 제시하여 준법의식을 향상시킨다.				
3	다양한 꽃들에 대해 알아본다.	꽃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설명한다.	꽃의 독특한 특성들과 사진이 같이 있는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해를 돕는다.				
4	자리를 배치한다.	둘줄로 된 원을 만들어서 앞뒤로 2인1조 짝궁이 되도록 한다.	자리를 무선 이동하여 아동들이 섞이도록 한다.				
5	친구의 장점을 닮은 꽃을 찾는다.	본인이 생각하는 친구의 장점을 탐색하고 장점 특성을 지닌 꽃을 찾는다.	몇몇 아동들의 행동 특성으로 추론하여 장점을 찾는 방법을 예시로 보여준다.				
6	친구의 장점을 이야기 해준다.	친구에게 닮은 꽃을 보여주며 장점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감정을 교류한다.	칭찬을 해주는 아동도 칭찬을 듣는 아동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장점이여야 함을 강조한다. 장점을 이야기해주는 방식은 '내가 보기에는 평소 네가 ~행동을 많이 해서 ~꽃의 ~점과 비슷한 것 같애.'로 한다.				
7	다른 친구와 짝이 되어 장점을 찾는다.	자리 위치를 바꾸고 장점을 닮은 꽃찾기 활동을 되풀이 한다.	한번의 활동이 끝나면 자리를 무선 이동하여 반구성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8	오늘의 과제를 설명하고, 마무리 한다.	친구가 찾아준 장점들과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들을 노트에 적어보면서 친구들이 이야기해준 장점들과 비교해본다.	여러 명의 친구들이 찾아준 똑같은 장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보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회기	12	활동명		단점은 장점으로!			
		장소	교실	일시	11/10,11/9	대상	초등학교 6학년(일반)
목표	자신의 단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개방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기른다.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친구들과 함께 찾음으로써 서로 지지해 주는 훈련을 하며 자신을 강화시킨다. 부정적 감정은 창조적 파괴활동을 통해 해소시킨다.						
준비물	싸인펜, 낙엽, 전지, 풀						
단계	동작표준화과정	실행과정		치료사의 기술과 기법			
1	화분 상태를 보고한다.	나만의 화분에 심은 식물의 상태가 어떤지 설명한다.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식물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준다.			
2	과제를 확인한다.	지난번 과제로 찾아온 것들을 이야기 한다.		노력한 점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준다.			
3	식물들의 보호방식을 알아본다.	치료사가 준비한 식물들의 보호방식을 설명한다.		기존에 나왔던 식물들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들 위주로 이해도를 높인다.			
4	자신의 약점을 탐색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약점과 친구가 바라보는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 나눈다.		약점을 극복하면 오히려 강점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자신의 약점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5	조별토의 시간을 갖는다.	자신의 약점을 발표하고, 나머지 조원들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언해준다.		올바른 보완법과 해가 되는 보완법을 구별해준다. 올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6	낙엽에 약점을 적는다.	낙엽에 자신이 변화시키고 싶은 약점을 적는다.		부정적 감정을 털어낼 수 있도록 힘차게 부수도록 지지한다.			
7	약점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행한다.	자신의 약점이 적힌 낙엽을 잘게 부순다. 그리고 부순 낙엽을 도화지에 뿌린다.		희망메시지는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담아 작성하고, 개인이 아닌 반 전체 입장에서 함께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8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한다.	낙엽들을 털어내고 도화지에 미리 작성되어 있던 메시지를 확인한다.					
9	오늘의 과제를 설명하고 마무리한다.	오늘 경험한 것과 내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인지 노트에 작성해오도록 한다. 다음 프로그램 전 교내를 산책하며 나뭇잎, 가지등을 채취하도록 한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통합하도록 한다.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며, 자신이 다니는 학교 생태계를 관찰하면서 자연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회기	13	활동명	솔방울 친구와 함께 만들어가요.				
		장소	교실	일시	11/15,11/16	대상	초등학교 6학년(일반)
목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의 특성과 친구들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의 특성들을 비교해보고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준비물	솔방울, 나뭇잎, 나뭇가지, 열매, 뽕뽕이, 모루, 뽕뽕이 장식, 낚시줄, 글루건						
단계	동작표준화과정	실행과정	치료사의 기술과 기법				
1	과제를 확인한다.	지난번 과제로 찾아온 것들을 이야기 한다.	노력한 점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준다.				
2	조별토의 시간을 갖는다.	좋은 친구들의 특성을 비교해본다.	다양한 특성 중 타인들이 호감을 느끼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차린다.				
3	솔방울 친구를 꾸민다.	여러 가지 장식들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꾸민다.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제공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4	솔방울 친구를 소개한다.	내가 되고 싶은 '좋은 친구'의 특성을 적어 솔방울 친구에 붙인다.	창의적인 표현에 긍정적 반응을 해준다. 글루건을 이용할 때는 화상에 주의하도록 한다.				
5	좋은 친구들을 전시한다.	솔방울에 낚시줄을 묶어 교실 한쪽 벽에 모빌처럼 매단다.					
6	좋은 친구에 대해 발표한다.	자신이 되고 싶은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발표한다.	어떤 친구가 좋은지, 왜 좋은지 등을 명료화시킨 후, 자신들과 비교해보며 자신을 성찰한다.				
7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솔방울 친구들처럼 좋은 친구들이 가득한 반이 되었음을 좋겠다고 다짐한다.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형들을 볼 때마다 실천의지를 북돋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8	오늘의 과제를 설명하고 마무리한다.	오늘 경험한 것과 선물을 전하고 싶은 고마운 사람을 찾아보고 노트에 작성해오도록 한다.	경험한 것을 되돌아보고,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회기	14	활동명	향기가 폴폴~사랑이 폴폴~				
		장소	교실	일시	11/17,11/18	대상	초등학교 6학년(일반)
목표	감각을 자극하고, 타인에게 고마움을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나 메세지 전달 방법을 연습시킨다.						
준비물	포푸리, 향주머니, 조화꽃, 글루건						
단계	동작표준화과정	실행과정	치료사의 기술과 기법				
1	오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타인에게 선물할 포푸리 주머니를 만들 것임을 설명한다.	포푸리주머니 샘플을 보여주어 프로그램의 이해를 높이고, 흥미를 유도한다.				
2	포푸리의 특성을 알아본다.	향기를 맡아보고 손으로 만져보며 어떻게 포푸리가 만들어지는지 유추해본다. 허브 식물 종류에 따른 효능에 대하여 설명한다.	신체 감각들을 자극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	포푸리를 주머니에 담는다.	원하는 향을 선택하여 포푸리를 주머니에 담는다.	여러 향과 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글루건을 이용할 때는 화상에 주의하도록 한다.				
4	조화꽃을 주머니에 장식한다.	원하는 꽃을 선택하여 글루건으로 주머니에 장식한다.					
5	고마운 사람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생각한다.	진행자가 설명하는 나 메세지 형식에 맞춰서 전달할 메시지를 노트에 작성해본다.	‘OO상황일 때 당신이 OO해줘서 내 기분이 OO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푸리 주머니로 제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라는 형식으로 나 메시지를 연습한다.				
6	오늘의 과제를 설명하고, 마무리한다.	선물을 전달했을 때의 나의 기분과 선물을 받았을 때의 상대방의 기분을 노트에 작성해오도록 한다.	작성한 메시지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2회기가 남아있음을 상기시켜주고, 다음 시간에 화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회기	15	활동명	나의 동반자를 소개합니다.				
		장소	교실	일시	11/22,11/23	대상	초등학교 6학년(일반)
목표	그동안 키운 식물을 소개하면서 노력한 결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며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						
준비물	나만의 화분, 금사철						
단계	동작표준화과정	실행과정	치료사의 기술과 기법				
1	지난번 프로그램을 되돌아본다.	선물을 실행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야기한다.	감사 표현에서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앞으로도 자주 표현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2	조별로 자신의 화분을 자랑한다.	자신이 키운 화분을 다른 조원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고, 다른 조원들의 화분을 관찰한다.	변화된 식물에 대한 기쁨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여 식물에 대한 교감을 향상시킨다.				
3	화분을 키우면서 느낀 점을 발표한다.	화분을 키우기 위해 자신이 노력한 점과 키우면서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 한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4	식물을 기르는 법에 대해 알아간다.	식물들의 상태를 보고 어떤 것이 원인인지 알아차릴 수 있도록 ppt 사진을 통해 식물 기르는 법을 알아간다.	식물이 죽은 친구들의 토피어리를 보며 원인을 쉽게 이해해볼 수 있도록 한다.				
5	다른 식물을 제공한다.	비어있는 토피어리에 새롭게 심을 식물을 준다.	토피어리를 만들 때의 방식을 떠올려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여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다시 한번 식물을 길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지를 강화하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불러온다.				
6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 한다.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여 다음시간에 선물을 받은 아동을 선발한다.	과제를 수행한 모든 아동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준다. 다음 프로그램이 마지막임을 상기시키며 작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회기	16	활동명	꽃으로 만든 케이크 어때요?				
		장소	교실	일시	11/24,11/25	대상	초등학교 6학년(일반)
목표	프로그램 동안 우리가 해낸 일들을 되돌아보면 축하하며 긍정적 경험을 강화시킨다.						
준비물	플로랄폼, 화분받침대, 생화, 가위						
단계	동작표준화과정	실행과정	치료사의 기술과 기법				
1	오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마지막 날을 기념하기 위한 꽃케이크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쉬움을 솔직히 표현하고, 마지막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2	꽃꽂이 재료를 소개한다.	플로랄 폼의 특성과 꽃꽂이할 꽃들을 알아본다.	하나씩 보여주면서 호기심을 유도하고,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3	꽃을 케이크조각(플로랄 폼)에 꽂는다.	생활를 짧게 잘라 원하는 위치에 꽃꽂이한다.	공동 조각케이크와 개별 조각케이크를 통한 창의적 표현과 느낌이 다른 관점에서 관찰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4	케이크조각을 한데 모은다.	8개의 조각케익을 화분받침대 한곳에 모아 케이크를 완성시킨다.					
5	서로 축하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동안 프로그램을 되돌아보며 축하할만한 일들을 찾는다. 그리고 느낀 점들을 이야기한다.	그동안 프로그램들을 되돌아보며 얻을 것들을 하나씩 상기시킨다. 치료사와 보조진행자도 함께 느낀 점들을 나눈다.				
6	1개를 제외한 나머지 꽃케이크를 다른 반에 선물한다.	다른 반 친구들도 꽃케이크를 감상할 수 있도록 선물해 준다.	타인에게 선물하면서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 한다.	과제수행을 잘한 아동들에게 사탕부케를 주고, 나머지 아동들에게도 사탕 하나씩 나눠준다.	모두가 열심히 했기에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가 됐음을 인식시킨다. 식물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작별의 아쉬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부록 2. 질문지

♠질문지♠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고학년이 된 여러분들이 평소 자기와 친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찮더라도 진솔하게 열심히 응답해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지에는 특별히 더 낫다거나 좋은 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각 문항마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것을 골라서 V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하는 내용은 오직 순수한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누구에게도 일체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허유미

소속 ()초등학교 ()학년 ()반 ()번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자신의 성별에 V표 해 주세요. 남 () 여 ()

2. 현재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빈칸에 V표 해 주세요.

- ① 할아버지 () ② 할머니 () ③ 아버지 () ④ 어머니 ()
- ⑤ 형/오빠 () ⑥ 누나/언니 () ⑦ 남동생 () ⑧ 여동생 ()
- ⑨ 친척(직접 적어주세요:) ⑩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3. 나의 출생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남 ()녀 중 ()째

예시: 형과 여동생을 둔 남학생일 때: (2)남 (1)녀 중 (2째)

4. 부모님의 나이와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세, () 어머니: ()세, ()

5. 부모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옆 빈칸에 번호를 표시해 주세요.

아버지: () 어머니: ()

- ①중학교 졸업 ②고등학교 졸업 ③대학교 졸업 ④대학원 이상

6. 가정에 화초나 채소등이 심어진 화분이 몇 개정도 됩니까?

- ① 없다 () ② 1개~5개 () ③ 6개~10개 () ④ 10개~20개 ()
- ⑤ 20개 이상 () ⑥ 텃밭이 있는 경우 ()

※ 다음 질문지는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느낌과 생각으로 생활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아래의 질문들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V 표 해주세요.

번호	질문내용	응답내용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	나는 학급에서 놀 친구가 없거나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를 보면 슬퍼진다.					
2	개와 고양이를 사람인 것처럼 관심과 애정을 너무 많이 가지고 대해주는 것은 어리석다.					
3	나는 불쌍하게 보이는 불행한 사람들 때문에 괴롭다.					
4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불안하게 보이면 나도 불안해진다.					
5	나는 친구의 문제 때문에 함께 고민하는 경향이 있다.					
6	가끔 유행가 가사가 나를 깊이 감동시킨다.					
7	나는 친구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다.					
8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 의해 기분이 많이 좌우된다.					
9	어떤 친구가 불행하다고 해서 나까지 마음이 아플 필요는 없다.					
10	나는 선물을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선물을 받는 것을 보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진다.					
11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도 괴롭고 울고 싶다.					
12	어떤 노래는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13	나는 이야기나 동화를 읽을 때 이야기 속 인물의 감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14	나는 어떤 친구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정말 화가 난다.					
15	나는 나의 가까운 주위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라도 차분하게 있을 수가 있다.					
16	나는 내 친구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한 후라도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고 갈 수 있다.					
17	나는 다른 사람의 웃음을 따라 웃는 일이 적다.					
18	가끔씩 나는 영화를 보며 내 주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울고 웃는 것을 보며 놀란다.					
19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우울해 하고 있으면 나는 내 일이 계속 잘 되어 간다고 느낄 수가 없다.					
20	사람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번호	질문내용	응답내용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21	나는 상처받은 동물을 보면 매우 마음이 아프다.					
22	힘없는 노인들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다.					
23	다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면 나는 동정심보다는 화가 나서 참기 어렵다.					
24	나는 내 주위의 친구들이 모두 흥분해도 가끔씩 냉정을 유지할 수 있다.					
25	나는 내게 일어났으면 하는 일에 대해 자주 공상을 한다.					
26	나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과 함께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다.					
27	나는 가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28	나는 문제를 가진 다른 친구들이 안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29	나는 어떤 친구가 이용당하는 것을 보면 그를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30	나는 나의 친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친구의 입장에서 사물이 어떻게 보일까 생각해 보고 노력하곤 한다.					
31	다친 사람을 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32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는 않는다.					
33	영화를 보고 나면 내가 마치 그 속의 주인공처럼 느껴진다.					
34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을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가끔 있다.					
35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다가 우는 때가 있다.					
36	나는 나 자신의 마음씨가 꽤 부드러운 사람으로 알고 있다.					
37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화가 났을 때 나는 잠시 동안이라도 그의 입장에서 서 보려고 노력한다.					
38	나는 아주 급히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곤 한다.					
39	다른 친구를 욕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친구라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 다음 질문지는 여러분이 평소 가족, 선생님, 친구들과 지내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아래의 질문들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V 표 해주세요.

번호	내용	응답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2	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만족한다.					
3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4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람으로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5	다른 사람들과 나의 관계는 만족스럽다.					
6	나의 생각, 느낌, 희망 등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곤 한다.					
7	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낀다.					
8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마다 못마땅해 한다.					
9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10	부모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					
11	부모님은 나의 일에 너무 무관심하다.					
12	부모님은 나를 믿지 못하시고 화를 많이 내신다.					
13	나는 선생님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14	선생님들이 불공평하고 차별대우한다.					
15	나는 선생님들 앞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16	대부분 선생님들이 너무 명령적이고 딱딱하다.					
17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있는 편이다.					
18	성의와 실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다.					
19	나는 선생님께 믿음이 가고 의지하고 싶다.					
20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괴롭다.					
21	나는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					
22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즐겁고 행복하다.					
23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낀다.					
24	친구를 사귄 때에는 내가 먼저 나선다.					
25	나는 학급에서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26	친구들과 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른 것 같다.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 원예활동 학습지

♠ 우리들이 지킬 약속들은 스스로 만들어요. ♠

조명:	월	일	요일
_____ 친구는	_____ 친구는	_____ 친구는	
_____ 친구는	_____ 친구는	_____ 친구는	

3명 이상의 조원이 똑같은 약속을 정했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는 무엇 무엇이 있을까?♠

조명:	월 일 요일
 <p>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p> <p>∂ ∂ ∂ ∂ ∂ ∂ ∂ ∂</p>	 <p>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p> <p>∂ ∂ ∂ ∂ ∂ ∂ ∂ ∂</p>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에는 뭐가 있나요?

♠ 내 친구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

화 가:	모델:	월	일	요일

- o 지금 친구의 표정은 _____인 것 같아요.
- o 지금 친구는 _____ 기분인 것 같아요.
- o 지금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_____
_____ 라고 생각해요.

♠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요? ♠

조명:	월	일	요일
_____ 친구는	_____ 친구는	_____ 친구는	
_____ 친구는	_____ 친구는	_____ 친구는	

이런 친구는 싫어요

-
-
-
-
-
-

이런 친구는 좋아요

-
-
-
-
-
-
-

부록 4. 원예활동 사진



<원예활동 설명하기>



<향기 주머니 서로 맡아보기>



<나만의 토끼어리 자랑하기>



<꽃 케이크 만들기>



<친구의 표정 표현하기>



<친구랑 닮은 꽃 찾기>

감사의 글

저에게는 짧기만 했던 3년의 시간동안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논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곳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애정 어린 마음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김양순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논문의 완성을 위하여 세심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송재홍 교수님과 소인섭 교수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김효심 교수님, 이차선 교수님, 양영웅 교수님, 김경순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인화초등학교의 임은경 선생님과 강수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없는 시간 만들어가며 열심히 원예활동을 보조해 주었던 김주희 선생님과 양순영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즐겁게 원예활동을 해준 2011학년도 6학년 2반과 5반 친구들 모두 사랑한다. 원예치료에 대한 많은 조언과 자료를 제공해주신 이상훈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서로 격려해주고 많은 도움을 준 나의 동기들 - 김해숙 선생님, 강형민 신부님, 최미숙 선생님, 신열화 선생님, 현경애 선생님, 고해인 선생님, 신수옥 선생님 - 고맙습니다.

아울러 언제나 나를 믿고 힘을 실어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누나뻘까지 집안일을 하며 건강을 챙겨주던 착한 나의 동생에게도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